

# “반도체학과 증설, 수도권 쏠림 부추겨… 지방대 소멸 가속”

16개 대학 반도체학과 중도탈락자 176명 중 126명 지방소재 대학생 취업률·혜택·경쟁력 부족이 원인  
관련 계약학과 17곳 중 11곳 수도권 양극화 등 해결 후 인재양성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 이후 대학 내 반도체학과 증설·증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으로 대학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이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생 인원 규제 완화 등 반도체 인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종로학원의 지난해 기준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 16개 대학의 반도체학과 중도탈락자 176명 중 126명이 지방 소재 대학이다. 이는 전체 중도탈락자의 71.6%로, 지방대 반도체학과생 이탈자가 높음을 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교육부

인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지방대학의 반도체학과 중도탈락 원인을 취업률, 교내 혜택 등 대학 자체의 경쟁력 부족을 꼽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대학들은 취업, 교내 혜택, 특수교육 담당 역량, 교수진 등 상위의 경쟁력 있는 대학에게 밀린다”며 “가장 우선시 되는 부

분은 ‘대학의 브랜드’”라고 분석했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대학원 계약학과 769개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17곳 가운데 11개(서울 6개, 경기 5개)가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이다.

지방대학들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대학의 지역 간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

한 채 모든 대학의 학부생을 늘릴 경우 지금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령 인구가 감소된 상태에서 수도권에 학생이 몰린다면 지방대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방대학들은 반도체 인재양성을 추진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대학의 지역 간 양극화 문제 등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대, 경북대 등 반도체 공정연구센터와 같은 큰 규모의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지방대학들의 기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적인 우수 인력 양성, 지방 대학 육성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립대학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국립대학법에서 주목할 점은 국립대

의 자율성 확보 및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인상이다. 특히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인상은 등록금 측면의 혜택을 더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도체 관련으로 수도권 정원을 늘려주는 식의 이야기는 지방대학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방대학 달래기 차원에서 국립대학법 등 지방 국립대학 육성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구조 조정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립대학에 대학 재정 지원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학교급식 이물질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보건진흥원, 이물질 관련 사과 “식품안전원과 식재료 안전성 확보”

학교보건진흥원은 최근 서울 내 고등학교 급식에서 연속적으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이물질 관리 가이드라인과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이물질 검출 관련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물질 관리와 관련하여서 급식종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이번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원에서 최대한 노력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7월 중 학교급식 간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이물질 발생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업체의 납품 자격을 제한 중이다. A고등학교에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한 결과, 4개 학교를 하나의 조리실로 관리해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급식식 분리 방안에 대해 교육감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렸다.

B고등학교의 급식 업체는 서울지방식약청의 지난 17일 해섭 인증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고등학교 업체와 같은 결과이며, 우선적으로 열무김치에 대한 식단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섭 인증에 대한 권한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해섭 개념 자체는 위험 요인을 기대 수준 이하로 관리·제거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제조과정에서 유인이 뭐가 있을지 검토해 유인별·공정별로 시스템화시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섭 인증서를 교부한다.

주목되는 점은 B고등학교의 경우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고등학교는 업체 측에서 잘못을 인정해 이용 제한 처분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B고등학교 납품 업체 대표는 자신의 잘못 아니라고 주장하며 B고등학교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서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질 예정이다.

임 원장은 “학교 주변 개구리 서식 환경 등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인이 학교로 밝혀지면 학교가 배상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하는 기자



상명대 서울캠퍼스 재직동문교수회는 제자들에게 ‘상명 제자사랑 후배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 /상명대

## 상명대 교수동문, 장학금 4800만원 전달

교수 48명이 모아 학생 59명에 수여

상명대학교는 21일 오후 5시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동문 교수들이 마련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동문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캠퍼스에 재직하고 있는 동문 교수 48명이 모아 마련한 4800만원의 장학금이 59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동문 교수들은 2011년부터 매월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모아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번을 포함해 총 578명의 제자에게 4억5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교수님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는데 학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거나 학교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며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학생은 “교수님들께 받은 귀한 사랑을 다시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신하는 기자

## 2025년 홍콩 대입시험에 한국어 포함

교육부·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어능력시험 양해각서 체결

교육부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홍콩대입시험(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홍콩시험평가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콩시험평가국은 2025년부터 홍콩 대입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 과목 신설을 확정하고, 해당 과목의 대입 시험 성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국외 대입시험에 활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입 등에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홍콩대입시험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제2외국어 한국어 과목 평가에 활용 ▲홍콩 내 연 2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홍콩대입시험 한국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한국어능력 시험 결과(2년 이내 취득한 최고 성적)를 홍콩시험평가국에 제공 ▲홍콩 현지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이해를 위한 연수 및 설명회 개최 등이 포함된다. 향후 교육부는 홍콩 현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콩대입시험 한국어 과목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콩대입시험 내 한국어능력시험의 활용 방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하는 기자

## 연세대 유하준 학생 美 학술단체 SPIE서 ‘광공학 장학금’ 수상

연세대학교는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유하준 학생(사진)이 미국 SPIE(국제광공학회)가 수여하는 ‘2022 광공학 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광공학 분야 최대 규모 학술단체인 SPIE가 매년 미래 광공학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촉망받는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전 세계 78명 중 아시아에서는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연세대 유하준 학생을 포함해 4명이 선정됐다. /신하는 기자



## 2023 미니수능 ‘모평’ 8월31일 실시

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사’ 필수과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오는 8월 31일에 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9월 모평은 수능 전 마지막 점검 기회로, 6월 모평만큼 중요도가 요구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

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과목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이번 9월 모평 역시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될 예정이다. /신하는 기자